

『자칼의 날』의 한국적 수용과 ‘국제킬러’ 캐릭터의 변용 양상

김성종 『제5열』을 중심으로

The Korean Reception of *The Day of the Jackal*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Killer’ Figure
: Focusing on Kim Seong-jong’s *The Fifth Column*

안혜연*

국문요약 이 글은 1970년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추리소설 『자칼의 날』이 동시기 한국에서 수용되고 변용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특히 『자칼의 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김성종의 추리소설 『제5열』을 중심으로 ‘자칼(국제킬러)’이라는 인물형이 한국의 정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자칼의 날』은 일본을 경유해 한국에 번역, 수용되면서 중요한 문화적 변용을 겪었다. 일본의 번역본은 작품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강조한 반면, 한국의 번역본은 영웅적 서사를 강화하고, 프로 페셔널리즘을 ‘신의’와 ‘책임’이라는 전통적 가치로 재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성종의 『제5열』은 이러한 수용 과정에서 더 나아가 국제킬러가 ‘훈혈’이라는 설정을 추가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한국의 전통적 가치(‘효’)를 이용해 해결하고자 한다. 이는 유신체제라는 정치적 상황,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의 전통과 근대의 충돌, 그리고 남성 독자들의 판타지적 욕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핵심어 자칼의 날, 제5열, 국제킬러, 문화번역, 남성성, 훈혈

- 차례**
1. 들어가며
 2.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자칼의 날』: 새로운 정치 스타일의 등장
 3. 일본과 한국에서의 『자칼의 날』 수용 맥락
 4. 한국형 ‘자칼’의 등장: 국제킬러의 수용과 변주
 5. 나가며

표적인 장르로 자리 잡았다. 추리소설의 형성과 발전에는 근대화에 따른 여러 사회문화적 조건들이 존재했다. 대도시의 출현과 그에 따른 도시적 익명성의 등장, 교육과 인쇄술의 발전에 따른 대중독자층의 형성, 근대적 사법제도와 경찰제도의 확립,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으로 세계를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근대적 믿음을 형성했고, 추리소설은 이러한 근대성의 산물로서 발전해왔다.¹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회문화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추리소설의 황금기가 열렸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교육의 대중화, 스포츠 신문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추리소설의 대중화를 위한 토대가 되었다. 이 시기 다수의 출판사에서 추리소설 전집이 출간되었고, 한국추리작가협회의 창설과 함께 한국추

1. 들어가며

19세기 후반 에드거 앨런 포의 『모르그가의 살인사건』(1841)에서 시작된 추리소설은 코난 도일의 셉록 홈즈, 애거서 크리스티의 포와로와 마플을 거치며 대중소설의 대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¹ 김용언, 『범죄소설 그 기원과 매혹』, 강, 2012, 14쪽.

리소설 대상, 신인상이 제정되면서 기성 작가와 신인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어졌다. 이는 한국 문학사에서 장르 문학의 대중화와 토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²

그러나 한국의 추리소설은 서구와는 다른 독특한 변용을 보여준다. 식민지 경험, 분단, 급속한 산업화라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의 추리소설은 단순한 장르적 관습의 수용을 넘어 독자적인 발전 양상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수용과 변용이 대부분 일본을 경유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서구 추리소설의 직접적인 영향과 모방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일본을 경유한 서구 추리소설의 한국적 수용이라는 복잡한 문화 번역의 과정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성중은 주목할 만한 작가다. 1974년 『한국일보』 공모에 『최후의 증인』이 당선된 이후, 1975년부터 1981년까지 『일간스포츠』에 연재한 『여명의 눈동자』로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다. 『여명의 눈동자』의 성공은 『한국일보』 장기영 사장이 ‘추정’이라는 필명을 직접 지어주며 『일간스포츠』에 추가 연재를 요청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요청으로 1977년 3월부터 1978년 10월까지 연재된 작품이 바로 『제5열』이다. 이후 김성중은 『일간스포츠』를 비롯해 『매일신문』, 『중앙경제』, 『부산일보』 등 다양한 매체에 추리소설을 연재했으며, 그의 작품들은 연재 완료와 동시에 단행본으로 출간될 만큼 큰 인기를 누렸다.

김성중 작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국제킬러’라는 새로운 인물형의 등장이다. 『제5열』(1979)의 ‘다비드 킴’을 시작으로 『제5의 사나이』(1982)의 ‘창’, 『반역의 벽』(1984)의 ‘나문식’, 『라인X』(1988)의 ‘X’ 등 총 4편의 소설에서 ‘국제킬러’가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이러한 인물형의 반복적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나 작가의 개인적 취향을

넘어서는 문화사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 ‘국제킬러’ 캐릭터는 1971년 출간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프레드릭 포사이드(Frederick Forsyth)의 소설 『자칼의 날』(The Day of Jackal)』(1971)을 적극 참조한 것이다.³ 이 점에서 문화적 전유와 변용의 사례로 탐구할 만하다.

포사이드의 첫 장편소설 『자칼의 날』은 출간 직후 미국의 추리문학상 에드거상을 수상하였고, 1973년 프레드 진네만 감독에 의해 동명의 영화로 제작 개봉되면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작품은 기존의 미스터리 소설이나 스파이 소설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장르적 특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실제 사건과 허구를 교묘하게 결합한 서사 전략, 철저한 취재에 기반한 사실적 디테일, 그리고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이후 정치 스릴러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자칼의 날』의 수용에서 주목할 점은 이 작품에 1974년 일본을 경유해 한국에 첫 번역, 수용되면서 강조점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한국에서 『자칼의 날』은 1974년 일본 번역본을 번역(중역)한 판본이 출간되었는데, 특히 일본 판본과 한국 판본은 역자 해설에서 유의미한 차이(덧붙임)가 있다. 이는 로렌스 베누티(Lawrence Venuti)가 제시한 번역의 문화정치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베누티는 번역을 “문화적이고 경제적이며 또한 정치적인 것”이자 “외국 문화를 재현하고 그것을 구축하는” 동시에 “자국적 주제 또한 구축”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⁴ 즉 “번역은 통상적으로 어떤 특정 문화 집단을 겨냥”하며, “정체성 형성 과정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자칼의 날』의 한국적 수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김성중의 『제5

2 안혜연, 「1970년대 후반~1980년대 한국 추리소설 붐과 그 사회적 맥락」, 『인문과학』 85, 2022 참조.

3 「문갑식의 인간증명 2: 한국 추리문학의 大山脈, 작가 김성중이 엮어낸 인간 드라마」, 『월간조선』 2019년 3월호 참조. 이 인터뷰에서 김성중은 자신의 작품에 영향을 준 작품으로 포사이드의 『자칼의 날』과 존 르 카레의 『추운나라에서 온 스파이』를 꼽았다.

4 로렌스 베누티, 임호경 역, 『번역의 윤리』, 열린책들, 2006, 9~10쪽.

5 위의 책, 119~121쪽.

열“에 주목하여, ‘국제킬러’라는 인물형이 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변주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김성중은 유럽을 누비며 활약하는 킬러 ‘자칼’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일본 식민 지배로 인한 ‘혼혈’이라는 새로운 설정을 추가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 변용의 과정으로, 1970년대 한국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먼저 『자칼의 날』의 등장 배경과 서사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 작품이 미스터리 소설 장르에 미친 영향을 규명할 것이다. 이어서 일본에서의 번역과 수용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이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김성중의 『제5열』을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수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70년대 한국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과 근대성의 수용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자칼의 날』

: 새로운 정치 스릴러의 등장

『자칼의 날』은 현실의 정치적 사건과 허구적 서사를 결합한 독특한 서사 전략으로 주목받았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60년대 프랑스에서는 알제리 독립 문제를 둘러싸고 드골 대통령과 우익 군 세력 OAS 간의 첨예한 정치적 대립이 존재했다. 이러한 현실정치의 상황을 배경으로 『자칼의 날』은 국적도 나이도 신분도 알 수 없는 “프로인 동시에 베스트”인 국제킬러 ‘자칼’이 OAS의 의뢰를 받아 드골 암살을 시도하는 이야기를 그린다.⁶ 특히 『자칼의 날』은 현실 정치인들을 실명으로 등장시키고, 폭탄제조나 총기 밀반입 과정, 여권 위조 과정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등

논픽션적인 측면을 강화하며 새로운 추리소설로 평가 받았다.⁷ 이와 같은 추리서사의 전환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달라진 스파이의 역할, 모호해진 도덕적 경계, 도덕적 명분이 아니라 개별 국가의 실리를 더욱 중요시하는 현실적인 변화가 자리한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카웰티(Cawelti, John G.)는 “모든 국가의 비밀 요원들이 적을 암살하고, 우호국과 중립국으로부터 군사적,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물자를 훔치며, 정치적 사건을 조작하고, 혁명과 국유화를 재정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서술한다.⁸ 『자칼의 날』의 흥행 이후, 모사드, KGB, CIA 등 각 국가의 비밀조직들과 그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스위스 은행이 추리소설에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⁹

『자칼의 날』은 논자에 따라 스파이 소설로 혹은 새로운 형태의 추리소설로 인식되었다. 추리서사는 “지배 계층에 모니 장치의 권력구조에 저항함으로써 쾌락을 생산”해내는 측면이 있음을 상기하면 추리서사에서 쾌락(pleasure)과 권력(power)은 대립적 관계 속에 놓여 있다 할 수 있다.¹⁰ 즉 추리서사의 즐거움은 권위나 기존 권력 형태의 붕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OAS에게 고용된 자칼이 암살 작전을 통해 드골 정부의 해계모니를 위협하는 방식은 중앙집권화된 권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자 “현대 국가의 권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의미하기도 한다.¹¹ 결과적으로 『자칼의 날』의 주인공 ‘자칼’은 기존 스파이 소설의 영웅상을 근본적으로 뒤집는다. 카웰티의 분석처럼, 1930년대까지의 스파이 소설 주인공들이 대개 아마추어였으며, 전형적인

7 줄리언 시먼스, 김명남 역, 『블러디 머더』, 을유문화사, 2012, 319쪽.

8 Cawelti, John G., *The spy st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p.187~188.

9 에르네스트 만델, 이도연 역, 『즐거움 살인』, 이후, 2001, 212~213쪽 참조.

10 Dey Anindita, “Power and Narrative Pleasure in Twentieth Century Detective Fiction: Contesting the Authority in *The Day of the Jackal and Angels and Demons*”, *Journal of Popular Culture* 48(5), 2015, p.880.

11 *Ibid.*, pp.881~882.

6 프레데릭 포사이드, 강혜정 역, 『자칼의 날』 1, 2, 국일미디어, 2006. 이하 이 책에서 인용할 경우 책 제목과 쪽수만 병기함.

클럽랜드(clubland) 신사들이었고, 그들의 세계는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¹² 반면 자칼은 “180센티미터가 넘는 키”에 “말랐지만 운동선수처럼 단단하고 균형 잡힌 체격”을 지닌 완벽한 프로페셔널로서의 모습을 보인다.¹³

직업적으로 하는 전문가라면 열정에서 행동하지 않소. 그러므로 좀더 침착하게 일을 진행할 테고 기본적인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낮죠. (...) 전문가이므로 최후의 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상황까지 모두 계산해두었으니까. 당연히 계획대로 성공할 가능성이 다른 누구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임무를 완수한 뒤, 자기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생각해내기 전에는 아예 행동에 돌입하려하지 않죠. 프로는 임무 완수와 탈출 두 가지가 다 가능해야만 움직인다는 거요.¹⁴

스위스 은행에 있는 내 계좌번호를 남기겠소. 선금 25만 달러가 은행에 예치되었다는 연락이 오고, 내 쪽에서 하는 작전 준비가 완료되어야, 둘 중 어느 것이 더 늦어질지는 모르겠소만, 나는 움직일 거요. 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할 거요. 나를 재촉하지도 말고 내 일에 참견하지도 마시오. 알겠습니까?¹⁵

인용에서와 같이 자칼은 홀로 작전을 수행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보안 인력에 맞서는 초인적 능력을 보여준다. 자칼이 보여주는 냉철함, 합리성, 모든 일을 빈틈없이 통제하는 전능함은 서구 근대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남성성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칼의 특성은 당대 인기를 끌던 이안 플레밍의 007 제임스 본드와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제임스 본

드가 냉전체제 하에서 조국(영국, 서방국가)을 위해 활약하는 애국적 영웅이었다면, 자칼은 충성심이나 애국심이 아닌 계약과 돈에 의해 움직이는 타산적인 인간이다. 자칼은 “이안 플레밍의 제임스 본드 시리즈와 달리 현실적인 묘사에 기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물형이다.¹⁶

『자칼의 날』은 냉전 시기 스파이 소설에 전형적인 이념 대립 구도를 탈피한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알제리 독립 문제는 동서 대립이 아닌 탈식민지화라는 새로운 정치적 맥락을 제시하며, 이는 베트남 전쟁과 제3세계 해방운동의 영향으로 단순한 이념적 대립을 넘어선 복잡한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현실 속에서 체제와 이념을 대변하며 그를 위해 복무했던 과거의 스파이와는 다른 스파이가 등장한 것이다. “오늘날의 스파이는 어느 편이 ‘옳은’ 편인지, 어느 쪽을 위해 변함없이 봉사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선한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이 쓴 모자의 색깔로 구분되지 않으며, 그들이 대표하는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모호하고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서술은 새로운 스파이 소설로서 『자칼의 날』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¹⁷

특히 자칼을 쫓는 프랑스 경찰 르벨 경감의 실패는 현대 국가의 감시 체계가 지닌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다. 소설 속에서 자칼은 위조 여권으로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공항 보안 검색대를 유유히 빠져나간다. 뿐만 아니라 결말에 이르러 자칼이 그를 쫓던 프랑스 경찰(르벨 경감)에게 죽임을 당한 것인지, 도망친 것인지 애매하게 끝을 맺는다. 결국 그의 실제 신원, 국적, 암살 계획의 배후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밝혀지지 않은 채 강조되는 것은 국가의 허술한 감시체계이다.

『자칼의 날』은 단순한 장르소설의 성공을 넘어, 현대 정치 스릴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했다. 작품이 보여주는 실제와 허구의 결합, 현대 사회의 감시체계에 대한

12 Cawelti, op.cit., p.187.

13 『자칼의 날』 1, 73쪽.

14 『자칼의 날』 1, 77쪽.

15 『자칼의 날』 1, 83쪽.

16 Bering Henrik, “Man of mysteries”, *New Criterion* 34(4), 2015, p.77.

17 Cawelti, op.cit., p.188.

비판적 성찰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장르 중 하나가 된 추리서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후 정치 스릴러 장르의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동아시아의 수용 과정에서 각국의 정치적, 문화적 맥락과 결합하며 독특한 변주를 이루게 된다.

3. 일본과 한국에서의 『자칼의 날』 수용 맥락

1971년에 영미권에서 출간된 소설이 큰 시차 없이 1974년 한국에서 번역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자칼의 날』은 일본에서는 『ジャッカルの日』란 제목으로 1973년에 카도카와 서점(角川書店)에서 처음 번역 출간되었다. 카도카와 서점의 2대 사장이었던 카도카와 하루키(角川春樹)에 따르면 영화화된 소설을 영화 개봉에 맞춰 출판하는 미디어 믹스 기획으로 적자였던 출판사를 회생시켰다고 한다. 『자칼의 날』 역시 1973년 영화 개봉 시점에 맞춰 일본에서 출간되었다. 당시 영화화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책과 영화를 연계한 마케팅을 계획했으며, 특히 동시기 사이토우 타카오(さいとうたかを)의 만화 『고르고 13(ゴルゴ 13)』에 등장하는 국제킬러가 흥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킬러라는 소재의 대중적 흡인력을 확신했다고 한다.¹⁸

1970년대 일본 문학장은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일본의 문학 평론가 오자키 히데키(尾崎英樹)는 당시 문학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을 구분 짓던 경계가 허물어”진 것을 든다. 그러면서 “현재는 매스미디어적인 문학과 그렇지 않은 문학으로 나뉘고 있다”고 지적한다.¹⁹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의 출판 문화가 ‘읽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크게 변화했다는 지적과도 연결된다. 오자키는 이러한 변화가 “인쇄문화 전체에 포섭될 정도로 발전했다”고 평가한다.²⁰

특히 주목할 것은 추리소설 장르에서의 변화였다. 오자키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소설 속에서 일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다큐멘터리적인 터치에 의한 독서의 등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²¹ 이 시기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의 논픽션 『일본의 검은 안개』의 유행과 함께 작품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대부』나 『자칼의 날』 등의 번역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인기를 끌었다.

한편, 평론가 나카지마(中島河太郎)와 권다(権田萬治)는 책 『世界の推理小説』에서 당시 일본 추리소설의 흐름을 “첫째, 본격추리소설의 전통을 계승하는 작품들, 둘째, 사회와 추리소설의 계보를 잇는 작품들, 셋째, 국제적인 스타일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유형의 작품들”로 구분한다.²² 『자칼의 날』의 성공은 이 세 번째 흐름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권다는 특히 『자칼의 날』의 혁신성을 “시대와의 접점을 잃지 않고, 현실 사회 상황에 대한 관심도 버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추리소설을 창조하는 현대적 기법”이라고 평가했다.²³ 포사이드가 채집 기법을 사용해 서스펜스 소설로 재구성하는 방식, 그리고 로이터 통신 기자 출신으로서의 저널리즘적 감각은 일본 장르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 『자칼의 날』은 1974년 5월 『작카르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해조사에서 첫 번역 출간되었고 이어 같은 해 10월 하서추리문학전집 제 10권 『재코올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해조사 판본의 경우 카도카와서점에서 출간한 일본어

18 角川春樹, 『わか闘争』, 角川春樹事務所, 2016, 128~129頁.

19 尾崎英樹, 「変貌する日本の出版文化」, 『朝日現代用語事典 1974』, 朝日新聞社, 1973, 25頁.

20 尾崎英樹, 「変貌する日本の出版文化」, 25頁.

21 尾崎英樹, 「変貌する日本の出版文化」, 25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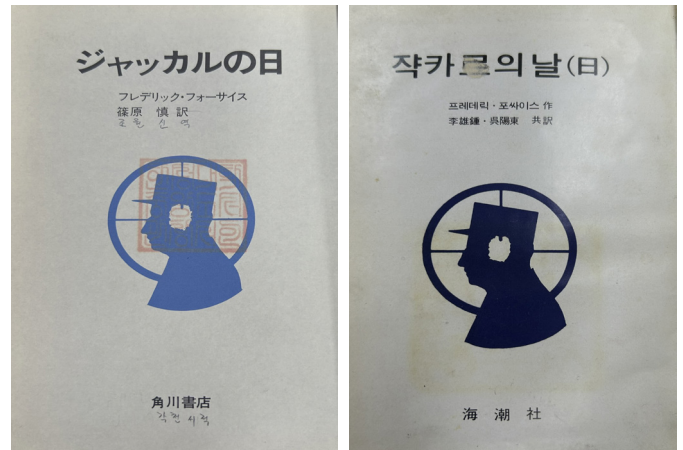
22 中島河太郎, 権田萬治, 『世界の推理小説 総解説』, 自由国民社, 1985, 135頁.

23 権田萬治, 「現代推理小説の諸問題」, 『教養としての殺人—日本推理小説精選評論集』, 蝸牛社, 1980, 294~296頁.

번역본과 내지 삽화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번역서의 목차 역시 동일하다. 또한 역자 후기의 내용까지 거의 비슷하여 일본어 번역본을 적극 참고한 번역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어 번역본 역자 후기는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사실과 픽션이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다는 점”을 꼽으며 사건이나 등장인물 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났거나 실존했던 것들임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프레드릭 포사이드가 드골 담당 기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소설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픽션인지 알 수 없음을 언급한다. 또한 “독자들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울 것(타임즈)”, “단순한 스틸러라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의 재구성이라는 느낌이 있다(선데이 익스프레스)”, “역사의 한 단면을 절묘한 픽션으로 채색하고(렉스프레스)”와 같은 미국 유력 일간지의 서평을 강조하며 이야기의 진실성을 강조한다.²⁴

해조사의 역자 후기는 일본어 판본 역자 후기를 그대로 옮기면서 몇 가지 요소를 추가한다. 일본어 판본의 역자 후기가 사실과 픽션의 융합이라는 작품의 특징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 해조사 판본은 거기에 더해 드골이라는 인물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시킨다.

이렇듯 암살계획은 당국의 부단한 노력으로 미연에 방지했으나 민주주의 국가의 원수로서 자국의 한 당파에게 이렇듯 생명을 위협당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드골 대통령은 한 사람의 경호원조차 귀찮게 여기고 전혀 암살이라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그는 영웅이라는 건 어느 시대에도 반드시 목숨이 노려지고 있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죽은 케네디가 부럽다, 나도 나라를 건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다면 본망이라고 말할 정도였다.²⁵



〈그림 1〉『자칼의 날』 일본어 번역본 내지 삽화와 해조사 판본 내지 삽화

해조사판 역자 후기는 케네디 암살과 연결지어 드골의 애국적 발언을 인용하면서 국가 원수로서 영웅적 면모를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OAS에 의한 암살 시도 사례에 대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강조, 구체적 서술을 통해 묘사하면서 소설의 내용이 허구가 아닌 실화임을 강조한다.²⁶ 즉 일본어 번역 후기가 작품의 사실성과 객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해조사 판본은 한국독자들의 정서에 맞게 영웅적 서사와 극적 긴장감을 강화하고 있다.

10월 하서추리문학 전집으로 출간된 두 번째 판본 『재코울의 날』은 『자칼의 날』의 한국적 수용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인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재해석을 보여준다. 원작에서 자칼은 철저히 계약과 보수에 기반해 움직이는 인물이다. 그가 OAS 조직과 맺은 것은 ‘약속’이 아닌 ‘계약’이며, 위험을 무릅쓰고 드골 암살을 강행하는 이유도 ‘신의’ 때문이 아닌 ‘돈’ 때문이었다. 원작에서 자칼은 나날이 삼엄해지는 경비에 암살을 포기할까 고민하지만, ‘프로’이자 ‘베스트 킬러’라는 자부심과 이 일을 마치면 평생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암살을 강행한다.

그러나 역자 김상일은 자칼의 이러한 면모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

24 프레드릭 포사이드, 篠原慎譯, 『ジャッカルの日』, 角川書店, 1974, 437頁.

25 프레드릭 포사이드, 이웅중·오양동역, 『작카르의 날』, 해조사, 1974, 7쪽.

26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서술이 상세히 이어진다. “1944년 8월 파리가 해방된 직후에 먼저 친독과 테러리스트의 저격을 받았다. 노틀담 사원의 한 구석에 숨어있던 괴한이 장군을 쏘았으나 탄환은 빗나갔다.” 프레드릭 포사이드, 앞의 책, 6쪽.

재코올은 결과적으로 몇 남녀를 살해한다. 그러나 한편 돌이켜 생각하면, 그러한 그의 비정적인 행동은 문명의 말세적인 현상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는 20세기 후반기에 서서, 그러나 일단 약속을 한 이상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기어코 신의(信義)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성실한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²⁷

이러한 재해석은 단순한 오역이나 오독이 아닌, 의식적인 문화적 전유로 보아야 한다. 이는 서구적 프로페셔널리즘을 한국적 가치관으로 재해석한 문화적 번역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자칼을 ‘신의’와 ‘책임(감)’이 있는 ‘성실한 인간’으로 정의함으로써, 돈과 계약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근대적 인간상을 한국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변용한 것이다.

이러한 변용은 당시 한국 사회의 문화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70년대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서구적 가치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와의 충돌과 조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김상일의 번역은 정치적 맥락을 최소화하고 스티리틱 요소를 강화하면서도 서구적 가치를 한국적 정서로 변용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작품이 유신체제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번역되었다는 점이다. 1972년 유신헌법 선포 이후 강화된 검열 체제는 문학 작품의 번역과 출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칼의 날』의 한국 수용은 1974년 8월 15일 발생한 ‘문세광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언론은 육영수 여사 암살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된 문세광이 “평소 스파이영화, 소설등에 이상할 정도로 탐닉해 왔”음을 강조하며, 문세광의 일본 집에서 『자칼의 날』 등 스파이 소설 수십 권을 발견했다고 보도한다.²⁸ 기사는 문세광이 “서울에 오기 전 영국의 로이터 통신 기자였던 프레드릭 포사이드씨

가 쓴 논픽션 『자칼의 날』이란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의 일본 번역판을 탐독”했다면서,²⁹ “드골 암살을 청부를 받은 주인공 자칼르가 파리 해방 기념일에 드골 암살을 계획했다가 실패하는 내용”으로, 이는 “문이 한국 해방 기념일에 박대통령 암살을 계획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³⁰ 이 소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³¹

문세광 사건은 한국에서 국제킬러물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장르가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 한국 언론은 문세광이 일본 영주권자로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입국했다는 점과 일본 경찰의 권총을 탈취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³²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킬러라는 허구적 설정이 현실의 정치적 위협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치적 맥락은 이후 한국의 국제킬러물이 현실 정치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피하고 오락적 성격을 강화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4. 한국형 ‘자칼’의 등장: 국제킬러의 수용과 변주

김성종의 『제5열』은 『자칼의 날』의 기본 골격을 수용하면서도, 1970년대 한국의 특수한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독특한 발전을 보여준다. 『제5열』의 국제킬러 다비드 킴은 “살인을 가벼운 운동으로 생각하며 1분의 착오도 없이 땀방울 하나도 흘리지 않는 단호하고 신속하며 무자비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는 원작의 자칼이 보여주는 프로페셔널리즘을 계승한 것이다.³³

29 「문, 서울 오기 전 드골 저격 논픽션 『자칼의 날』 탐독, 『경향신문』, 1974.8.27.

30 「스파이물 즐기고, 드골 암살 탐독, 『조선일보』, 1974.8.24, 7면.

31 이후 『자칼의 날』 광고에는 “문세광이 이를 읽었다고 해서 화제”라는 문구가 추가되기도 한다. 「자칼의 날, 『조선일보』, 1974.9.5, 5면.

32 박광현, 「‘문세광’이라는 소문: 제일조선인 문학에 재현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일본학』 48, 2019 참조.

33 김성종, 『제5열』 1, 2, 3, 남도, 1980. 이하 이 책에서 인용할 경우 제목과 권수, 쪽수만 병기함.

27 프레드릭 포사이드, 김상일 역, 『재코올의 날』, 하서출판사, 1974, 430쪽.

28 「스파이물 즐기고, 드골 암살 탐독, 『조선일보』, 1974.8.24, 7면.

또한 어떤 여성과도 정서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차가움을 보여주면서도 모든 여성들을 만족시키는 남성이다. 소설에서 다비드 김은 친일단체 대동회의 수장인 Z와 계약을 맺은 관계일 뿐 Z에 대한 의리나 조직에 대한 충성심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Z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잠시 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Z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솔직하고 정직한 생각인 것이다. 서로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형제를 맺은 것도 따라서 그 필요가 없어지면 그 관계도 사라지는 것이다.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 연연한 쪽만 손해 보기 마련이다.³⁴

그가 중요시하는 것은 의형제와의 의리가 아니라 돈으로 맺은 계약이다. 어떤 조직이나 국가에 소속되지 않고 누구와도 깊은 인연을 맺지 않은 채 오직 계약과 보수로만 관계를 맺는 다비드 김의 모습은 ‘자칼’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그 역시 금발 외국인, 중후한 노인, 30대 청년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하며 위조된 여권으로 신분을 위장한다. 그가 유력 대통령 후보 장연기의 암살을 시도하는 장면은 자칼이 드골을 암살하는 장면과 겹쳐지며, 경찰에게 쫓기자 우연히 만난 여성의 집에서 은거하며 그녀와 관계를 맺다가 결국 그 여자를 살해하고 도망친다는 설정 역시 동일하다.

『제5열』과 『자칼의 날』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현실정치나 세계정세 등을 소설의 배경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프레드릭 포사이드는 신문기자 출신으로, 『자칼의 날』은 ‘픽션과 논픽션 사이에 있는 소설’이라 평가 받을 만큼 자칼이라는 허구의 인물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정치적 사건을 거의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제5열』은 수상제 국가라는 상상적 공간을 구성하고 현실정치와의 연결을 느슨하게 만들면서

현실성을 지우는 대신 추리소설의 오락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자칼의 날』에서 자칼은 국적도 알 수 없고 본명도 알 수 없는 인물, 즉 국가가 없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는 서구에서는 장르적, 오락적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설정이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80년대 한국에서 “사회 속에서 베일에 가린 채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수수께끼의 인물”³⁵은 자연스럽게 북한, 간첩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소설은 이러한 국제킬러 형상에 내포된 불온함을 이상적인 남성성(국제킬러)과 아웃사이드(일본의 지령을 받는 매국노)의 대비를 통해 해소한다. 아웃사이드가 무정형, 정욕을 통제하지 못함, 음탕함, 신경증과 연관되는 존재라면 이상적인 남성성은 중용과 절제, 자기 통제력, 순수함, 단련된 육체로 나타난다.³⁶

1970년대 후반~80년대 추리소설에 북한이 직접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일본의 좌익세력이나 소련 등을 경유해 한국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려진다. 따라서 다비드 김과 같은 국제킬러들이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계약을 통해서만 움직이는 근대적인 남성으로 남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삭제, 우회하거나 아니면 이들이 한국의 남성, 같은 민족임이 증명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킬러는 불온하며 흉악한 간첩과 연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비는 국제킬러물이라는 장르에 반공이데올로기라는 강력한 이념이 개재하여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국의 남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신체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적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성중의 국제킬러물이 보여주는 가장 독특한 특징은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독립적이고 강인한 인물이 동시에 한국의 전통적 가치를 체현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어

35 「40대 주인공은 변신의 명수, 2일부터 본격추리소설 선사하는 김성중 씨」, 『일간스포츠』, 1981.8.30, 9면.

36 조지 L. 모스, 이광조 역, 『남자 이미지』, 문예출판사, 2004, 4장 ‘카운터타입’(98~132쪽)의 논의 참조.

34 『제5열』 2, 303쪽.

면 조직이나 국가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계약을 통해서만 움직이는 근대적 전문가이면서도 동시에 호와 같은 전통적 가치를 실천하는 ‘한국 남성’으로 그려진다.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비드 김은 이상적인 남성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혼혈’이라는 민족적 결합을 가진 존재이다. 그의 아버지는 해방과 함께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진 어머니는 그를 버린다. 고아 아닌 고아가 된 다비드 김은 결국 미국으로 입양된 후 시련을 겪으며 국제킬러로 성장한다. 결국 그는 국제적으로 성공한 남성이라는 판타지적인 남성성을 소유하고 있지만 ‘혼혈’이자 민족의 순수함을 해치는 존재라는 점에서 스스로 한국 남성임을 증명하고 공인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다.

다비드 김이 한국의 남성임을 증명하는 방식은 우선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이해하고 이들에게 지극한 ‘효심’을 보이는 것이다. 1972년 유신을 선포한 박정희는 새로운 민족문화 구축을 위해 가부장 중심의 유교적 가치를 한국 민족의 덕목으로 재조명한다.³⁷ 특히 근대화 과정의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문화이자 전통문화의 핵심으로 ‘충(忠)과 효(孝)’를 현대에 되살려야 할 전통문화이자 ‘민족문화’의 핵심 가치로 거론한다.³⁸

『제5열』에서 다비드 김이 보여주는 ‘효심’은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최진이 다비드 김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다비드 김은 정말로 이상한 사나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사나이다. 보기 드물 정도로 잔인한 킬러가 자기 어머니에게만은 눈물겹도록 효성이 지극하다. 그것도 자기를 끝까지 길러주지도 않은, 자기를 버린 어머니를 말이다. 그에게

37 김혜영, 「동원된 가족주의 시대에서 가족 위협의 사회로」, 『한국사회』 17(2), 2016, 23쪽.

38 이하나, 「1970~1980년대 ‘민족문화’ 개념의 분화와 쟁투」, 『개념과 소통』 18, 한림과학원, 2016, 177~178쪽.

도 그런 인간적인 면이 있단 말인가.³⁹

이혜령은 식민지 시기 소설에 나타난 혼혈아 표상을 분석하며 혼혈아의 재현이 젠더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남성 혼혈아들이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극복하고 민족적 동일성을 확보”해 간다면 여성 혼혈아들은 “퇴폐적이고 방탕한 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민족을 오염시키는 존재로 남는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 혼혈아들이 민족적 동일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이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반쪽짜리’ 피라는 생물학적인 영역이 아닌 정신적인 영역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증명해 나간다.⁴⁰

1950년대 이후 급증한 혼혈아 입양은 부계 친족의 표상에 따라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⁴¹ 그러나 이 국제킬러의 아버지의 나라인 일본은 식민지의 기억과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곳이며, 그를 확대하고 박해한 미국 역시 아버지의 나라가 될 수 없다. 이 다비드 김은 모국(母國), 문자 그대로 ‘어머니 나라’로 돌아와 효자가 됨으로써 ‘반쪽짜리’라는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의 남성으로 인정받고자 한다. 그러나 ‘효’는 생물학적으로 식별 가능한 ‘혼혈’이라는 특성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그의 한국 남성됨은 기존의 규범적인 한국 남성(최진)에게 효심이 참된 것임을 인정받음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⁴²

39 『제5열』 2, 128쪽.

40 이혜령, 「인종과 젠더, 그리고 민족 동일성의 역학: 1920~3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혼혈아 정체성」, 『한국소설과 골상학적 타자들』, 소명출판, 2007, 126~129쪽.

41 권희정, 『미혼모의 탄생: 추방된 어머니들의 역사』, 안토니아스, 2019, 114쪽.

42 또한 ‘김(KIM)’이라는 (한국인임을 알 수 있는) 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를 한국인처럼 잘하는 것 역시 한국 민족임을 증명하는 요소이다. 1970년대 중반 재일교포는 “한 핏줄 한 겨레”의 일원이면서도 “민족정신과 주체의를 상실한 무국적자”이기도 했다. 특히 “한국말을 잘 못하고 의식구조와 태도가 일본화”한 2, 3세 재일교포는 “조국 말도 못하는 병신”이라고 불릴 만큼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상된다. 김범수, 「1970년대 신문에 나타난 재일교포의 표상」, 『일본비평』 17, 2017, 304쪽.

다비드 김은 국제적으로 활약하면서 한국 밖에서 성공한 인물이면서도 한국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인 ‘효’를 실천하는 한국 남성이다. 그는 미국, 일본, 홍콩, 유럽 등 전 세계에서 활약하며 전 세계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정복’한다. 국제킬러 캐릭터가 구현하는 성공의 모습과 과잉된 남성성, 그리고 동시에 ‘효자’라는 모순적인 재현은 당시 추리소설의 주 독자층이었던 남성 대중들의 판타지적 욕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단체나 조직, 국가에 속해 있지 않은 독립적이고 강인한 국제킬러는 일차적으로는 현실에서 성공과 출세 담론에 시달리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 독자들의 환상을 실현해주었다. 또한 그들이 해외 여러 나라들을 누비는 모습 역시 산업전사로서 국가 경제발전의 책임에 짓눌려 있던 독자들에게 해방감을 안겨주는 요소이다. 그러나 어떠한 사적 인연도 맺지 않은 채 오직 계약에 의해 움직이는 합리적, 현대적 인간형인 국제킬러에게서도 가족의 인연, 가족 부양의 의무는 초월적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이는 전통적 가족 이데올로기인 ‘효’로 표현된다. 비정하고 독립적인 국제 킬러는 결국 효자였던 것이다.

5. 나가며

본 연구는 1970년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추리소설 『자칼의 날』이 동시기 한국에서 수용되고 변용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특히 김성종의 추리소설 『제5열』을 중심으로, ‘자칼(국제킬러)’이라는 인물형이 한국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자칼의 날』은 현실 정치와 허구를 결합한 새로운 정치 스릴러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실존 인물과 사건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 묘사, 철저한 프로페셔널리즘을 특징으로 하며, 특히 주인공 ‘자칼’은 어떤 이념이나 조직에도 속하지 않은 채 오직 계약과 보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었다.

이 작품은 일본을 경유해 한국에 수용되며 중요한 문화적 변용을 겪었다. 일본에서는 작품의 사실성과 객관성이 강조된 반면, 한국의 초기 번역에서는 영웅적 서사가 강화되고 프로페셔널리즘이 ‘신의’와 ‘책임’이라는 전통적 가치로 재해석되었다. 김성종의 국제킬러 시리즈는 이러한 수용 과정에서 더 나아가 ‘훈혈’이라는 설정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효’라는 전통적 가치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러한 변용은 유신체제라는 정치적 상황,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의 전통과 근대의 충돌, 그리고 남성 독자들의 판타지적 욕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특히 문세광 사건 이후 국제킬러물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장르가 되면서, 현실 정치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피하고 오락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는 장르문학의 초국적 수용과 변용 과정이 단순한 모방이나 이식이 아닌, 복잡한 문화적 협상과 창조적 전유의 과정임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한국에서 ‘국제킬러’라는 인물형의 수용은 세계화와 민족주의, 근대성과 전통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 문화적 번역의 중요한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일간스포츠』
 김성중, 『제5열』 상, 중, 하, 남도, 1979.
 프레드릭 포사이드, 이응중·오양동역, 『작카르의 날』, 해조사, 1974.
 _____, 김상일역, 『재코울의 날』, 하서출판사, 1974.
 _____, 강해정역, 『자칼의 날』 1, 2, 국일미디어, 2006.
 フレデリック フォーサイス, 篠原慎譯, 『ジャッカルの日』, 角川書店, 1974.
 「문갑식의 인간증명 2: 한국 추리문학의 大山脈, 작가 김성중이 엮어낸 인간 드라마」,
 『월간조선』 2019년 3월호.
 「추리소설이라는 운명을 받아들였다: 김성중 작가 인터뷰」, 『미스테리아』 31, 엘릭
 시르, 2020.

2. 단행본 및 논문

- 권희정, 『미혼모의 탄생: 추방된 어머니들의 역사』, 안토니아스, 2019.
 김범수, 「1970년대 신문에 나타난 재일교포의 표상」, 『일본비평』 17, 2017.
 _____. 「'혈육'에서 '경계인'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 재일동포의 표상과 한국 민
 족주의」, 『정치사상연구』 24(2), 한국정치사상학회, 2018.
 김용언, 『범죄소설 그 기원과 매혹』, 강, 2012.
 김학선, 『24시간의 탄생: 1980년대의 시간정치』, 창비, 2020.
 김혜영, 「동원된 가족주의의 시대에서 가족 위협의 사회로」, 『한국사회』 17(2), 2016.
 로렌스 베누티, 임호경역, 『번역의 윤리』, 열린책들, 2006.
 박광현, 「'문세광'이라는 소문: 재일조선인 문학에 재현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일
 본학』 48, 2019.
 안혜연, 「1970년대 후반~1980년대 한국 추리소설 붐과 그 사회적 맥락」, 『인문과
 학』 85, 2022.
 이하나, 「1970~1980년대 '민족문화' 개념의 분화와 쟁투」, 『개념과 소통』 18, 한림과
 학원, 2016.
 이혜령, 「인종과 젠더, 그리고 민족 동일성의 역학: 1920~3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
 타난 혼혈아 정체성」, 『한국소설과 글상화적 타자들』, 소명출판, 2007.
 에르네스트 만델, 이도연역, 『즐거운 살인』, 이후, 2001.
 조지 L. 모스, 이광조역, 『남자 이미지』, 문예출판사, 2004.
 줄리언 시먼스, 김명남역, 『블러디 머더』, 을유문화사, 2012.

- 角川春樹, 『わが闘争』, 角川春樹事務所, 2016.
 権田萬治, 「現代推理小説の諸問題」, 『教養としての殺人—日本推理小説精選評論
 集』, 蝸牛社, 1980.
 尾崎英樹, 「変貌する日本の出版文化」, 『朝日現代用語事典 1974』, 朝日新聞社,
 1973.
 中島河太郎, 権田萬治, 『世界の推理小説総解説』, 自由国民社, 1985.
 Bering Henrik, "Man of mysteries", *New Criterion* 34(4), 2015.
 Cawelti, John G, *The spy st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Dey Anindita, "Power and Narrative Pleasure in Twentieth Century Detective
 Fiction: Contesting the Authority in The Day of the Jackal and Angels
 and Demons", *Journal of Popular Culture* 48(5), 2015.

Abstract

The Korean Reception of *The Day of the Jackal*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Killer' figureFocusing on Kim Seong-jong's *The Fifth Column*

An, Hea-Yun |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how Frederick Forsyth's *The Day of the Jackal* was received and transformed in 1970s Korea, specifically examining how the figure of the 'international killer' was reinterpreted within Korea's sociopolitical context through Kim Sung-jong's international killer series. The novel set a new paradigm for political thrillers by combining real politics with fiction, and introduced the 'Jackal' as a new type of character who operated solely on contracts and compensation, without allegiance to any ideology or organization.

The work experienced significant cultural transformation as it was received in Korea via Japan. While the Japanese translation emphasized the work's factuality and objectivity, early Korean translations reinforced heroic narratives and reinterpreted professionalism through traditional values of 'loyalty' and 'responsibility'. Kim Sung-jong's international killer series further developed this adaptation by addressing issues of national identity through the 'mixed-race' setting and resolving them through traditional filial piety.

This transformation, resulting from the political context of the Yusin regime and the collision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shows that the transnational reception of genre literature is a complex process of cultural negotiation and creative appropriation.

Keywords *The Day of the Jackal*, *The Fifth Column*, international killer, cultural translation, masculinity, mixed-race

이 논문은 2024년 11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23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